

buddhanews.com

그 무언가를 하더라도 오직 주인공에 맡겨서 모두 하셔야

25면에서 계속

도 왜 있어야 나무가 말라서 잘 타는 것과 같고, 수행이 돼 있지 않다면 아주 젖은 나무와 같아서 안 타죠. 그러니까 아직도 겹피기에, 즉 말하자면 타의에서 구하는 습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녹이려면 아예 진짜로 무조건 믿고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훨훨 탈 테니까요.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질문자(3남):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 저는 56세가 됩니다. 신사생인데 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게 된 것은 제가 살아온 것이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로부터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 기저귀에 싸여서부터 해남 대흥사(大興寺)에 다녔습니다. 할머니 등에 업혀서요. 내 나이 때만 하더라도 무너눅남이던 귀한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좀 입력이 잘못돼 가지고, 저는 서울법대를 오수해서 들어갔습니다. 죽을 고비도 네 번을 넘겨서, 연탄가스 중독돼서 죽다 살고, 훗날 상에서 밥을 먹다가 옷이 울라서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연달아 나서 네 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고등학교 동지들이 하여튼 서울법대를 8명 들어왔으니까, 좀 괜찮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거기 입학할 때는 수석도 했고 그래서 자신있어 했는데, 내가 들어가다. 내가 시험을 친다고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도 했고, 또 사법시험을 본다 하고 하면 계속 사고가 나서, 열한 번을 썼는데 1980년도에는 집안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해서 더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가솔도 있고 그래서 사법시험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인연이었는지 요가다, 지압이다, 경락 등이다 해 가지고, 산간벽지에 가서 고 시공부를 하다 급제한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을 돈도 안 받고 한 번만 만져 주면 다 나았는데, 막상 내 문제는 하나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실패작이라고 했습니다.

고시에 뜻을 두었다가 20년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동창회 모임을 십 몇 년을 하다, 불사에 관련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돌산을 시작했는데 한 2년 전에 애당초의 방향과 틀려져서 그 돈을 가계 수포다, 카드다 해 가지고 지난 5월 31일에 몽땅 갚아 주었지만, 그것이 구르고 구르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해서, 지금 아주 높은 이자와 함께 현재 빚이 한 1억 5천 정도 돼 있습니다. 그 일단 잘 풀리면 되기는 되는데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모르겠고, 지난 11월에는 집도 철도 없다는 말처럼 자식과 마누라하고도 헤어졌고, 집도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조계종 절은 아닙니다만 보살이 운영

하는 조그만 암자에 가서 그야말로 의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11월경 큰스님께서 간접적으로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전해 주셔서 그걸 읽고 마음을 정리하면서 지금은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불법에 인연을 맺고 귀의를 했습니다. 다마는 과거의 너무나 잘못된 일들로 인해 또 지금 제 수행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쁜 결과가 왔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이 귀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은 안돼도 대는 이어 달라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되더라고요. 팔만 돌 내리 넣은데다가 집사람이 자궁암이라든진단을 받은 것도 있지만, 숙원이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얻어서 아들은 겨우 하나 낳았습니까. 다마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91년도에는, 업보성이었는지 당뇨하고 폐결핵이

나.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만약에 소를 잡지 않으면 안 돼서 소를 한 마리 잡는다 하더라도 주인공에 맡기고 잡았을 때는 살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이 되고, 또 소의 근본은 바로 무명을 쳐서 나한테 집어넣었으니 사람이 된 거죠. 금방 내가 된 거죠. 그래서 한 번 굴러서 재생이 돼서 사람으로 인도 환생을 한다던 거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 수레에 한 번 굴러서 내놓으면 그렇게 공덕이 된다 이 소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렵고 가난하고 무질서하게 살지 마시고 모든 것에 중심을 두고 사신다면 어떠한 괴로움의 구덩이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질문자(3남):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찾되 보이는 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 아닌 문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헤아려 보면 '진리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 또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보이고 잡히는 걸로 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가다 보면 항상 보이는 걸로써 자꾸 저를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로써 그 문 아닌 문을 찾아야 되는데 또 넘어질 때는 안 보이는 걸로 자꾸 넘어집니다. 큰스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 아닌 문을 찾으려면 안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찾는 것이며 그 문 아닌 문, 그 안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비록 법문 중에 큰스님께서 백번 천번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시 한 번 새기는 심정으로 큰스님께 질문드립니다.

합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창과 칼과 활을 썼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 대포, 뭐 심지어는 로켓까지 올라가고 말이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외에 또 그것보다 더 광대한 문제를 어디서 가져와요? 그리고 빛보다도 더 빠르고 한계에 부딪치지 않고 가고 올 수 있는 거, 가고 올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문을 찾으며 배우려고 하지 마라. 문을 찾으며 공부하는 자는 학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찾는 거고,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하는 건 문이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마음은 문을 찾지 않아도 아무 데고 문이 된다는 거, 은산철벽도 문이 된다는 거, 깊은 물도 문이 된다는 거, 허공도 문이 된다는 거, 그냥 어디고 문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하다 못해 미생물까지도. 그렇게 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부처라고 이름했고, 공덕이라고 이름을 했죠. 공덕! '일신(日新)의 공덕은 크고 작음도 없이 그렇게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자기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그 주인공이 죽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이냐 되는 거지 판 구멍은 없어요. 과거, 미래를 몰아내 마음대로 자유자재 할 수 있는 문은 그 문밖에 없어요.

사회자: 질문이 없습니다.

큰스님: 오늘 여러 법우님들하고 같이 도반으로 한자리에 앉았던 것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구,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집이 망가지거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의 생명이 살 수 없게 되거나 앓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그 지구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제 그런 것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을 알고 생각하고 그래도 거기다가 놓을 줄 아니까, 우주 천지에 직결이 돼 있으니까 다 알고 다 수습하겠구나. 관할하겠구나. 부딪치지 않겠구나. 출지 않겠구나. 팽창되지 않겠구나. 에너지가 없어서 못 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참 기뻐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거는 모르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쓰는 데서 연방 직결이 돼 있거든요. 연방 직결이 돼서 가설이 돼서 통신이 되거든요. 우주하고도요.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하지만 차차 공부를 더 하면 알게 돼요!

*위 법문은 1996년 1월 7일 범형제법회에 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든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고 가난하고 무질서하게 살지 마시고

모든 것에 중심을 두고 사신다면

어떠한 괴로움의 구덩이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겉쳐서 세 번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고, 좀 좋아지는 과정에서 좋은 일이라고, 모두 불자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책임지고 했다가 실패했던 것을 업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매여서 휘말렸는데, 이제는 업보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다 잘되었구나. 당신이 했으니 당신 책임이다.' 하고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아직 과거의 습성 때문에 그렇게 잘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큰 가르침 주십시오.

큰스님: 우리가 말입니다. 산을 가로질러 좀더라도 거기 지신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관리인하고 같이 한마음이 돼 주어야 아무 기려도 없고, 하다 못해 나무를 한 그루 자른다 하더라도 그 나무와 더불어 나하고 한마음이 돼야 그 나무 물체는 잘라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매사 걸 자기가 한다고 그냥 모두 날렸으니 뭐가 됩니까? 그리고 어머니 때부터 미친신 것도, 믿어서 결정을 짓지 못할 거라면 애당초에 믿지나 말 것이지 그냥 이리저리 벌여 놓고, 여기 떠 놓고 빌고 저기 떠 놓고 빌고 해서, 오히려 마구니를 끌어들여 가지고선 해결을 못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우님들은 그 무언가를 하시더라도 오직 주인공에 맡겨서 모두 하계공 하라 이걸

한마음 입장에서 보면 똑같겠지만요, 지금 저와 같은 무수한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도 쓰러지는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그 쓰러질 가능성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 중간기업들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내서 어떻게 관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픔을 아니까 같이 아팠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큰스님: 이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지를 돕는데 어떻게 해야 제일 잘 돕느냐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라는 습성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자꾸 잘못돼 돌아고 얻어먹기만 하게끔 만드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보태 주지만 한다면 그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뿌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가만 두는 겁니다. 가만 두도 잘돼 갈 겁니다. '가만 두도 잘돼 갈 겁니다.' 하는 소리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꼭! (잠깐 말씀을 멈추시고)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그런 게 생기고, 모두가!

질문자(4남): 큰스님 고맙습니다. 저는 광주지원 청년회에서 왔습니다. 큰스님 법문 중에 문을

큰스님: 품풍이로서는 문을 꼭 찾아서 들어가야 들어갈 수가 있죠?

질문자(4남): 네.

큰스님: 그런데 마음은 말이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마음이 나가죠? 지금 이 자리에 집에 갔다 와 보세요. 어디로 나가야죠? 마음이 문을 찾아 나가야 될까요. 그렇지만 않으면 그냥 나가야 될까요. 난 여기서 저 건너 내방이 있는 데를 그냥 벽도 붓장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나가는데... 저 건너방 가는 것이 나 지구 전체를 도는 사이가 같은 사이예요. 다른 우주나, 태양이, 또 다른 혹성에 간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생각 딱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몸속에서 수없는 입자가 만약에 벽도 없고 붓장도 없이 그냥 나간다면, 문도 없이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를 두고 '천백역화신이 나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됐다는 것만 해도 아주 최상의 철단이죠. 그래서 인간이 마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의식을 입자로 내보낼 때 그렇게 한계가 없죠. 그런데 무슨 문이 필요합니까? 문은 이 몸풍이, 모습이 있는 걸로 축지하 진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문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대한국불교조계종 종도모집

함께할 종도 여러분을 모십니다.

※본 종단은 비구부·비구니부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스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본 종단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입증서류

1. 본 종 입증 소정 양식-1부
2. 여권 사진-4매
3. 주민등록등본-1통
4.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1매
5. 사찰 내·외부 사진-1매

입증과 동시에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총무원(02)379-5502 / FAX (02)379-0843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축적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영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안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행복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94번지 / 사무실: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